

PEOPLE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오도형 주무관 ‘으뜸 광주세관인’ 국제무역선 무단 승선·적재 적발

광주본부세관은 5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오도형 주무관(사진 오른쪽)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주무관은 집중 현장점검과 정보분석을 통해 국제무역선 무단승선 및 선용품 무단 적재를 적발해 항만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포상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ISO 14001·ISO 45001 인증 유지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사진)는 2025년도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사후관리심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심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환경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019년 ISO 45001, 2020년 ISO 14001 인증을 전국 개발공사 최초로 취득한 이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전 임직원의 실천을 통해 매년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공사는 환경 리스크 및 기회관리 체계 정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규 준수활동, 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개선 이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승남 사장은 “이번 심사 결과는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환경보호와 안전경영을 위해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현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신용보증재단 ‘ESG 함께’ 플로깅데이 활동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최근 순천시 해룡면 생태회랑로 일대에서 재단 임직원이 참여한 ‘ESG 함께해요! 플로깅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자연 생태계 보존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통해 순천만 국가정원과 이어지는 생태회랑로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강근 이사장은 “자연을 아끼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재단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신보는 올해 ‘ESG 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데 이어 ESG 실천을 위한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상생 공간으로”

전남 28호 민간정원 ‘해남 비원’ 삼산면 귀향한 김미정씨 가꿔 예쁜정원 콘테스트 대상 수상

전남도는 제28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해남 비원(秘園)’ 정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식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비원(秘園)’은 해남 삼산면에 있으며, 주변 숲과 마을 들판 경관이 잘 어우러져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조성한 정원이다.

앞쪽에는 옥산, 뒤쪽에는 우담매골이 자리해 아늑한 산들로 둘러싸였다. 옛 마을의 산비탈 아래 다랑이논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김미정 정원주는 지난 2006년 고향 해남에 귀향해 가꾼 정원을 지역민과 정원마니아 등에게 개방하는 ‘해남 비원’ 여는 날 행사를 지난 2일 진행했다.

김미정 정원주는 “2024년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아 그 영광을 지역민과 나누고자 민간정원 등록을 추진, 정식으로 개방하게 됐다”며 “해남의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지역민과 함께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원 규모는 1만 769㎡로, 정원주가 직접 나무와 화초를 구해 심고 가꿔 뽕나무, 느릅나무, 철쭉, 매화, 목서, 모과 등 70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한울정원, 바위정원, 바람의 정원, 수국동백정원, 장미정원 등 5개 주제 정원의 배치가 돋보인다. 시그니처 정원인 ‘한울정원’은 ‘바른 우리’의 터전이라는 의미다.

낮은 언덕과 연못, 굽이굽이 펼쳐진 산책로, 사계절 내내 산 위에서 시원한 물줄기 떨어지는 폭포가 있다.

비원에는 총 9개의 크고 작은 연못이 있다. ‘바위정원’과 연결돼 있으며, 바위정원을 따라 정상에 오르면 ‘바람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비원 전경과 남쪽으로 넓게 펼쳐진 들판을 볼 수 있으며 날마다 빛깔이 다른 노을 풍경을 선사한다.

바람의 정원 옆으로 2000여평의 너른 땅에 수국과 동백이 꽃피우는 ‘수국동백정원’은 여름에 푸른 수국 꽃이 청량감을, 겨울에는 붉은 동백



전남도 제28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해남 비원(秘園)’ 정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식으로 개방했다.



전남 제28호 민간정원-해남 비원

이 마음 따뜻함을 선사한다.

바람의 정원을 내려와 ‘별빛전망대’에서 시작되는 60m의 ‘장미정원’에는 향기로운 은갖 종류의 장미꽃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개인이 오랜 기간 가꾼 특색있는 정원이 전남도의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민간정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양상의, 전남드래곤즈 홈경기 경품 후원

3000만원 상당 광양사랑상품권 전달

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개최된 전남드래곤즈 홈경기 개막전에서 2025시즌 홈경기 경품 ‘광양사랑상품권’ 3000만원을 후원하는 협약 체결 및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과 김규홍 전남드래곤즈 사장, 정인화 광양시장, 고재운 광양제철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광양사랑상품권을 시즌 홈경기 경품(150만원, 20경기)으로 제공하며 구단이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홈경기 관람객만

족도 향상과 광양시 소비진작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우광일 회장은 “경기장 광고에 이어 전남드래곤즈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관람객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 내 소비진작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상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민생안정 소비촉진 협의체에 동참해 광양사랑상품권 1200만원 구매, 상공인 및 경제단체 2500만원 지원, 기업 및 근로자에 정부지원금 1억3000만원 상당을 집행해오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gwangnam.co.kr



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개최된 전남드래곤즈 홈경기 개막전에 2025시즌 홈경기 경품 ‘광양사랑상품권’ 3000만원을 후원하는 협약 체결 및 전달식을 가졌다.

장흥군,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유적지 체험

(제)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역중학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5 해외 한국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장흥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 한국역사문화 탐방은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와 전남도교육청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추진하며, 중학교 2학년 전체 219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총 5개 그룹으로 나뉘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지인 매건기념관을 방문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항일 독립운동의 유적지 등을 탐방하게 된다.

특히 장흥군과 자매결연된 중국 해염현 소재 학



교와의 공동수업을 추진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탐방은 단순 국외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장흥의 동학운동과 독립운동 역사와 연계한 공동 교육광장을 통해 문림의향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탐방사업 참여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농협 전남본부, 하나로마트 선도조합 협의회 정기총회

사업 활성화 논의…‘광주전남 하나로마트 경영대상’ 시상식도

농협 전남본부는 12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협의회 소속 농축협 조합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하나로마트 사업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허순구 협의회장은 “경제 불안으로 인한 고물가 현상이 경기침체 및 소비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며 “협의회는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소비자들과 농업인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가 되도록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전남농협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4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경영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해남농협협동조합, 북광주농협협동조합, 함평농협협동조합, 낙동농협협동조합, 서영암농협협동조합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훈 기자 photo25@



동구, 도시공원 산책로 안전점검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12일 제350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금남로공원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시연합회와 함께 도시공원 산책로 안전점검 활동을 펼쳤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동신대-센트럴윤길중간과 업무 협약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최근 센트럴윤길중간과(대표원장 윤길중)와 실무형 인재 양성 및 동신대 교직원,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동신대